

---

# 텔레비전 프로그램 장르 분류기준에 관한 연구

---

주창윤 ·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과 교수  
joo@swu.ac.kr

이 연구의 목적은 방송위원회가 텔레비전 프로그램 장르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다. 최근 텔레비전 장르 간 혼합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고, 새로운 장르들이 부상함으로써 방송현실에 맞게 프로그램 장르를 정의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장르와 관련하여 방송사, 시청자, 방송규제기구, 방송관련 산업 사이에 일관성 있는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적지 않는 갈등과 혼선을 빚어왔다.

이 연구는 방송전문가, 방송종사자, 시청자의 장르인식을 토대로 방송법 편성규제, 프로그램 변화 등을 고려하면서 텔레비전 장르를 16개 — (1) 뉴스, (2) 시사보도, (3) 다큐멘터리, (4) 생활정보, (5) 토론, (6) 교육과 문화예술, (7) 어린이, (8) 드라마, (9) 버라이어티 쇼, (10) 음악 쇼, (11) 퀴즈와 게임 쇼, (12) 인포테인먼트, (13) 영화, (14) 코미디, (15) 스포츠, (16) 광고와 기타 — 로 구분했다. 각각의 장르는 포괄적이기보다 좁은 의미로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왜냐하면 장르 간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였다. 16개의 텔레비전 장르는 다시 90개의 하위장르로 분류했다. 하위장르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프로그램 내용과 형식, 방송법의 편성규제 등을 고려했다. 또한 장르별 다양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 주제어: 텔레비전 장르, 하위장르, 방송위원회 장르분류기준

---

## 목 차

- I. 문제의 제기
  - II. 텔레비전 프로그램 장르 논의
  - III. 방송 전문가와 시청자의 장르인식  
조사결과
  - IV. 텔레비전 프로그램 장르와 하위장르
  - V. 결 론
-

## I. 문제의 제기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방송 전반에 걸쳐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이다. 프로그램은 한 사회 내에서 방송의 이념, 문화, 제도 등이 구체화되는 영역이며, 방송사, 시청자, 그리고 산업을 매개하는 고리이다. 방송의 사회적 공적 의미는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수준보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 낸 성과를 통해서 파악해야 한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을 배제해 놓고 방송의 공익성, 품질 등을 논의하기 어렵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일관된 기준으로 분류하는 장르<sup>1)</sup> 연구는 '좋은 방송'을 실천하고 평가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그러나 방송 프로그램 장르와 관련해서 방송사, 시청자, 방송규제기구, 학계, 방송관련 산업(조사회사, 광고대행사 등) 사이 일관성 있는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장르를 구분하는데 동일한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장르 구분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학계는 비평과 공익성(편성의 다양성 분석)을 목적으로 장르를 구분한다. 반면 방송사는 제작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방송규제기구는 방송법이 규정하는 편성규제에 맞게 장르를 나눈다. 방송관련 산업은 광고단가와 시청률을 측정하는데 편리한 방법으로 장르를 세분화한다. 결국 방송사, 시청자, 방송규제기구, 방송관련산업 등은 동일한 프로그램을 서로 다르게 분류하고 있다.

텔레비전 장르 논의는 1993년 방송위원회에서 제시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유형분류 기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93년 방송위원회가 제시한 프로그램 유형분류는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도, 교양, 오락의 삼분법을 적용하는 분류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규제기구가 편성을 평가하는데 유용성을 지닌다. 더욱이 텔레비전 프로그램 유형분류기준은 장르를 기본 단위로 설정하면서 한 가지 기준을 사용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경직성을 감안하여 형식, 내용, 시청대상, 제작주체 등 세분화된 분류기준을 첨가함으로써 장르 분류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텔레비전 프로그램 유형분류 기준은 변화하는 프로그램의 성격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장르 혼합(genre blending)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드라마와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와 버라이어티 쇼 사이 장르 혼합 현상과 더불어, 정보와 오락을 함께 담아내는 '인포테인먼트'(infotainment),

1) 이 연구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유형(type) 대신에 장르(genre) 개념을 사용할 것이다. 장르는 '형태'(form)나 '유형'을 의미하지만, 장르 개념 안에는 수용자, 제도(산업), 텍스트의 세 가지 요소들을 포함한다. 반면 유형은 제작자나 생산자(산업)의 입장에서 프로그램의 형식과 내용을 구분한다.

교육과 오락을 포함하는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등 프로그램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혼합된 형태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새롭게 등장하는 프로그램들 — 리얼리티 쇼, 전자 게임쇼,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등 — 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도 모호하다. 게다가 현재 통합방송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편성규제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지닌다. 변화된 방송환경, 프로그램 그리고 시청자의 기대에 맞는 새로운 텔레비전 프로그램 장르 구분의 필요성은 증대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변화하는 프로그램 장르, 방송법, 방송종사자와 시청자의 인식 등을 토대로 방송위원회의 새로운 장르분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텔레비전 프로그램 장르 논의

### 1. 텔레비전 장르: 텍스트, 수용자, 산업의 상호작용

장르 연구는 문학과 영화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연구에도 중요한 출발점을 제공한다. 형식주의 비평으로부터 구조주의 비평에 이르기까지 문학과 영화 장르는 텍스트나 수사학적 특성에 집중함으로써 독자나 제도를 고려하지 않았다. 더욱이 문학과 영화 장르 연구는 기존의 문학과 예술 이론으로부터 장르를 연역적으로 도출함으로써 역사적이기 보다 이론적 성향을 띠어왔다. 이런 점에서 문학과 영화의 장르 연구를 텔레비전 장르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를 지닌다. 왜냐하면 장르는 이론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산업과 수용자의 취향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이다.

장르는(텍스트) 의미의 생산과정에서 필수적인 구성요소이다. 텍스트의 의미와 관습들이 접목되어 체계화된 형식인 장르는 텍스트의 코드화(codification of text)만이 아니다. 오히려 장르는 텍스트, 산업, 주체(수용자) 사이에서 순환되는 지향점, 기대, 관습의 체계라고 볼 수 있다(Neale, 1980, p. 19).

장르가 텍스트의 형식과 내용만이 아니라 산업이나 제도 그리고 수용자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다는 닐(Neale)의 주장은 산업이 어떻게 장르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수용자는 어떻게 특정 장르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지에 관한 통찰을 제공해준다. 따라서 장르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의 수준, 수용자의 기대지평, 산업의 요구라는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닐(Neale, 1990)은 텍스트 수준과 관련하여 '장르를 과정'(genre as process)으로 인식한다. 장르는 "반복과 유사성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차이(difference), 변형(variation), 변화(change)로 특징"(Neale, 1990, P. 56) 지워진다는 것이다. 장르는 기존 장르와 차이를 보이면서 변화와 변형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장르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 수용자의 욕구, 내재적 발전, 시대적 역할 등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한다. 장르 관습들은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지만, 장르의 누적과 혁신의 과정은 변화를 초래한다. 장르의 부침이나 관습의 변화는 역사적 산물이라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사회현실을 반영하기보다 매개하는 경향이 있다.

텔레비전 장르를 정의하는데 두 번째로 고려할 사항은 '수용자의 기대지평'(horizon of expectation)이다. 텔레비전 장르는 산업(제작자)과 수용자 사이 공모관계를 통해서 형성된다. 수용자는 특정 장르 프로그램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고 있다. 동시에 수

용자가 얻는 즐거움과 정보는 장르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장르 관습이 만들어내는 방식에 따라서 수용자의 기대지평은 달라지게 된다. 수용자의 기대지평은 문화적 환경의 변화와 장르변화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바뀌게 된다. 야우스(Jauss, 1982)는 독자(수용자)가 갖는 기대지평을 세 가지로 기술한다.

첫째, 장르의 친숙한 규범이나 내재적인 시학(詩學) [각각의 장르가 갖고 있는 고유한 관습이나 형식의 수준에서]에 의해서; 둘째, 친숙한 작품을 문학사(혹은 문화사)적인 상황과 관련시킴으로써; 셋째, 텍스트를 해독하는 동안 비교 가능한 허구와 현실 사이, 또는 언어의 시적 기능과 일상적 기능 사이의 대립관계를 통해서(Jauss, 1982, p. 24) 야우스는 어떻게 독자가 텍스트를 해독하는지에 관한 열쇠를 제공해 준다. 문학독자와 마찬가지로, 텔레비전 시청자도 프로그램의 시학,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친숙성과 문화적 사회적 지식으로부터 기대지평을 형성한다. 이것이 시청자가 프로그램을 보면서 즐거움을 얻거나 평가하는 방식을 규정한다.

산업(혹은 방송사나 제작자)도 장르변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방송산업은 기존 장르관습을 통해서 일정한 프로그램들을 제작한다. 방송사가 일정한 장르관습을 만들어내는 것은 수용자의 기대지평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지만, 경제적 이유로 안정적인 시청자 층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충성도가 높은 수용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방송사는 관습적인 장르관습을 유지한다. 그러나 여기서 방송사의 딜레마는 '관습'(conventions)과 '창의성'(inventions)을 프로그램 제작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사가 관습적 장르에 빠질 때 수용자는 더 이상 재미를 느끼기가 어렵다. 또한 방송사가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수용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시청자 층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상에서 보듯, 텍스트의 형식과 내용이 변화해 가는 과정, 수용자가 특정 장르를 경험하면서 갖는 지식인 기대지평, 그리고 안정적인 시청자를 확보하기 위한 산업의 요구 등이 결합해서 텔레비전 장르를 만들어낸다.

## 2. 학계의 분류방식

학계의 경우 두 가지 측면에서 텔레비전 장르를 분류해왔다. 외국의 경우, 주로 비평의 수준에서 텔레비전 장르를 구분해왔다. 로즈(Rose, 1985)는 텔레비전 장르를 경찰 드라마, 서부극, 의학 드라마, 공상과학 드라마, 시트콤, 소프라 오페라, 텔레비전 영화, 다큐 드라마, 뉴스, 다큐멘터리, 게임 쇼, 버라이어티 쇼, 광고로 나눈다. 밴드 버그와

위너(Vande Berg & Wenner, 1991)는 코미디, 액션-모험 드라마, 멜로드라마, 소프라 오페라, 어린이 프로그램, 광고, 음악, 뉴스, 스포츠, 토크 쇼, 게임 쇼로 분류한다. 크리버, 밀러, 털로크(Creeber, Miller and Tulloch, 2001)는 드라마(단막극, 서부극, 액션 시리즈, 경찰 시리즈, 병원 드라마, 공상과학물, 드라마-다큐멘터리, 미니시리즈, 고전 드라마, 10대 시리즈, 포스트모던 드라마), 연속극, 코미디, 대중오락(퀴즈쇼, 토크쇼, 음악 쇼, 스포츠, 광고), 어린이 프로그램, 뉴스, 다큐멘터리(관찰 다큐멘터리, 다큐 소프라 오페라, 리얼리티 다큐멘터리,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구분한다.

이와 같은 분류는 방송 비평을 위한 것들이어서 드라마를 세분화하고 있다. 방송 비평은 다른 장르보다 드라마 부분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오락 관련 프로그램의 경우, '가벼운 오락(light entertainments)으로 퀴즈, 토크 쇼, 음악 쇼 등이 버라이어티 쇼 등을 포함한다. 방송 비평을 기준으로 한 분류는 일관성 있는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의 주관적 관심사에 의존하기 때문에 활용하는데 한계를 지닌다.

국내 연구자들은 비평적 시각이 아니라 편성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로 텔레비전 장르를 분류한다. 강대인 외(1983)와 한진만(1989)의 분류는 보도와 오락 영역에서 유사성을 띠고 있다. 그러나 교양 관련 프로그램의 분류에 있어서 내용과 형식을 통한 분류가 아니라 모호한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강대인 외는 교양을 사회교육, 일반 교양, 고전음악, 학습으로, 한진만은 정보교양, 성인교육, 일반교양, 어린이 교양으로 구분하는데 구체적인 장르 프로그램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최양수(1993), 조성호(2000), 이은미(2001)는 유사한 분류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들은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뉴스, 시사, 다큐멘터리, 토론/대담, 생활정보, 문화예술, 학습(교육), 드라마, 연예/오락(버라이어티 쇼 등), 코미디, 스포츠, 영화, 퀴즈/게임, 만화, 어린이 등 총 15개 장르로 분류한다. 최양수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형식을 중심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조성호는 어린이/청소년을 포함시킴으로써 수용자도 고려하고 있다.

박소라(2003)는 뉴스, 시사, 다큐멘터리 교육, 교양/정보, 드라마, 연예/오락, 시트콤, 스포츠, 영화, 음악, 인포테인먼트, 만화, 어린이, 게임 등으로 나누었다. 박소라는 프로그램의 형식과 내용, 기능, 수용자 등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 또한 인포테인먼트나 게임 등을 새로운 장르로 분류함으로써 현실에 맞는 장르 범주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장르범위의 수준이 일정하지 않는 약점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교양/정보라는 큰 범주를 사용함으로써 대담/토론, 생활정보, 문화예술 등이 교양/정보이라는 하나의 장르에 포함됨으로써 장르범주의 수준이 지나치게 차이가 난다.

국내 연구자들이 구분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장르와 관련해서 다시 생각해야 할 점은 세 가지다. 첫째,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시사 프로그램과 다큐멘터리, 시사 프로그램과 뉴스 사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다. 둘째, 생활정보 프로그램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불확실하다. 셋째,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분류가 애매하다. 강대인과 한진만은 어린이 프로그램을 어린이 교양과 어린이 오락으로 구분했고, 조성호와 박소라는 만화/인형극과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을 분리했으며, 이은미는 어린이 프로그램에 만화를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시청대상을 고려해서 어린이 프로그램을 별도의 장르로 구분할 것인지 아니면 프로그램 내용과 형식을 중심으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요구된다.

### 3. 방송사와 관련산업의 분류방식

방송사와 관련산업(조사회사나 한국방송광고공사)은 프로그램의 내용과 형식에 따른 일관된 분류방식을 취하지 않는다. 방송사는 제작국에 따라서 프로그램 장르를 구분한다. 방송 3사의 홈페이지에 나타난 프로그램 분류는 KBS가 뉴스, 시사교양, 드라마, 연예오락, 스포츠로, MBC는 뉴스, 시사교양, 드라마, 연예오락, 보도로, SBS는 뉴스, 교양/정보, 드라마, 예능, 애니메이션으로 구분한다.

방송 3사는 제작주체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분하기 때문에 뉴스, 드라마, 스포츠를 제외하면 대단히 애매하다. 특히 편성담당자의 분류한 것과 제작자가 분류한 것 사이에도 차이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KBS <TV유치원 하나, 둘, 셋>은 홈페이지에 연예오락 프로그램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편성담당자는 (어린이) 교육으로 구분한다. 같은 종류 퀴즈 프로그램의 분류에서도 일관성이 거의 없다. KBS 홈페이지에 <퀴즈 대한민국>,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는 연예오락으로 분류하지만, 편성담당자는 <도전 골든벨>, <도전 지구탐험대>, <도전, 역사퀴즈>는 시사교양 프로그램으로 구분한다.<sup>2)</sup>

방송 3사의 프로그램 장르구분은 제작부서에 따른 편의상 분류이기 때문에 유용성이 적은 편이다. 반면 조사회사인 TNS나 한국방송광고공사는 보다 세분화된 분류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시청률 측정과 광고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방

2) 이와 같은 분류의 혼선은 MBC와 SBS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MBC는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인 <뽀뽀뽀>, 외화인 <CSI 마이애미>를 연예오락으로, SBS는 <TV 동물농장>, <여행쇼! 일상탈출> 등을 교양정보로 구분한다. 따라서 일관성있는 장르구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송광고공사는 1999년 방송광고코드표준화 사업을 실시해서 '프로그램 유형분류 표준코드'를 확정했다. 한국방송광고공사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프로그램 장르를 구분한다. 대분류는 보도, 정보, 드라마와 영화, 오락, 스포츠, 교육, 어린이(유아), 종합, 기타로 총 9개 장르가 포함되며, 각각의 장르마다 중분류(47개 장르)와 소분류(133개 장르)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도의 경우 중분류로 뉴스, 대담/토론, 시사, 보도종합, 보도기타로 나눈다. 다시 뉴스는 소분류로 스트레이트, 뉴스해설, 스포츠, 기상, 해외, 지역, 경제, 종교, 종합, 기타로, 대담/토론은 대담, 토론,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으로, 시사는 기획보도와 시사보도, 보도종합은 보도종합, 보도기타는 보도기타로 세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장르 분류방식의 체계와 기준이 모호하다는 약점을 갖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방송 3사는 제작주체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분류함으로써 동일한 프로그램들도 방송사마다 다르게 규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조사회사나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분류는 경제적 목적에 따라 프로그램을 분류함으로써 세분화되어 있다는 강점이 있지만,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편성의 다양성을 측정하는데는 부적합하다.

#### 4. 방송규제기구의 장르 분류

방송위원회의 프로그램 분류기준은 보도, 교양, 오락의 기능분류를 대분류로, 장르분류를 중분류로 사용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오락 프로그램 장르를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교양과 오락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기 위한 의도 때문이다. 방송위원회의 장르분류 기준은 FCC나 ITC의 분류기준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방송위원회는 장르구분 이외에 형식, 제작주체, 내용, 대상 등을 분류기준에 포함시킴으로써 편성의 다양성도 분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미국의 FCC는 프로그램을 (1) 뉴스, (2) 사실, (3) 시사(다큐멘터리), (4) 정치, (5) 교육 기관 프로그램, (6) 학습, (7) 종교, (8) 농사, (9) 오락, (10) 스포츠, (11) 어린이, (12) 기타(Bittner, 1980, 안정임, 1993 재인용)로 구분한다.<sup>3)</sup> FCC는 프로그램을 내용에 따라서 분류한다. 프로그램의 내용물과 주제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분류함으로써 프로그램 형식, 장르, 시청 대상은 배제되어 있다. 미국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편성이 오락 프로그램 중심으로 짜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락(enter-

3) Bittner(1980)의 분류에는 어린이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1996년 일주일에 세 시간 이상 적합한 시간에 네트워크에서 어린이 프로그램을 방영해야 한다는 어린이 텔레비전 법이 통과되었다. 따라서 FCC 장르범주에 어린이 프로그램을 포함시켰다.



tainment)을 하나의 범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며, 뉴스, 사설, 시사, 정치, 교육 기관 프로그램, 학습, 종교, 농사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은 규제기구가 지니고 있는 특징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분류법은 미국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현실과 특징을 담아내지 못한다.

영국의 독립방송위원회(ITC: Independent Television Commission)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류하지만 형식과 대상을 부분적으로 참고하고 있다(ITC, 1991). ITC는 뉴스, 드라마, 사실적(factual) 프로그램, 예술, 종교, 오락, 어린이,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분류하는데, 이와 같은 프로그램 분류를 통해서 채널 허가 및 면허갱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ITC의 프로그램 분류법에서 사실적 프로그램을 시사와 일반적 사실 프로그램으로 구분한 것이 특징이다. ITC는 어린이 프로그램을 별도의 장르로 구분함으로써 어린이 프로그램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은 성인교육과 사회교육으로 분류한다. ITC의 분류는 영국방송법에서 규정하는 편성의 규제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의 시청각최고위원회(CSA: Conseil Superieur de l'Audiovisuel)는 프로그램을 (1) 뉴스, (2) 시사(다큐멘터리), (3) 픽션(드라마), (4) 토론, (5) 교육, (6) 코미디, (7) 공연예술, (8) 대중음악, (9) 영화, (10) 어린이(애니메이션 포함), (11) 토크 쇼, (12) 오락(버라이어티 쇼) 등으로 구분한다.<sup>4)</sup> 문화 프로그램의 분류가 구체화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프랑스 공영방송인 France 2와 France 3에 대한 의무 편성조항은 문화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연간 최소 15회 창작물 공연예술 방영, 음악 프로그램은 프랑스어로 된 가요를 주로 방영하며, 방송쿼터에 대한 약정에 따르면, 영화나 드라마와 관련하여 유럽제작물 방영 비율과 프랑스 제작물 방영비율 등을 규정하고 있다(Clement, 2003, 130~135쪽). 프랑스의 문화정책을 지키고, 문화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규제가 다른 국가에 비해 많은 편이기 때문에 CSA의 장르구분은 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보다 세분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각 국의 방송규제기구에서 바라보는 장르구분은 미학적, 규범적 차원에서 장르를 설정하기 보다, 국민문화(nation culture), 방송 정책, 방송 이념, 방송 규제 등을 고려해서 장르를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규제기구가 방송사, 조사·광고회사 등과 다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규제기구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이 장르분류는 시청각최고위원회(CAS)가 직접 분류한 것이 아니라 프랑스 방송법이 규정하는 편성 규제와 관련해서 연구자가 추론한 장르분류이다.

### Ⅲ. 방송 전문가와 시청자의 장르인식 조사결과<sup>5)</sup>

#### 1. 방송 종사자의 장르인식

프로그램 장르구분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을 조사한 결과, 1순위로 '프로그램 내용과 형식중심 분류'가 전체 응답자의 74.3%를 차지했고, 2순위로는 '방송환경변화에 따른 장르변화 반영'(34.1%), '제작자의 기획의도 고려해서 장르설정'(26.8%), '시청 대상층을 고려해서 장르를 분류한다'(26.3%)로 나타났다. 방송종사자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형식을 중심으로 장르를 구분해야 하며,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장르변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방송 3사가 아침 6~9시 사이 편성하는 뉴스와 생활정보를 다루는 프로그램들(〈세상의 아침〉(KBS2), 〈뉴스 투데이〉(MBC), 〈생방송 모닝와이드〉(SBS))이 어느 장르에 속하는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새로운 장르로 구분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54.5%를 차지, 아침 시간대 뉴스와 생활정보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기존 뉴스, 생활정보 프로그램과는 다른 프로그램 장르로 인식하고 있었다.

아침 시간대 뉴스와 생활정보 프로그램들과 저녁 종합 뉴스인 〈KBS 9시 뉴스〉를 얼마나 유사하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측정했다. 4점 척도(1점 '매우 다르다'와 4점 '매우 비슷하다')를 이용해서 상대적 유사성을 측정할 결과, 〈KBS 뉴스광장〉(3.11)과 〈뉴스 투데이〉(2.94)는 〈KBS 9시 뉴스〉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뉴스 형식과 생활정보를 함께 다루고 있는 〈아주 특별한 아침〉(1.77), 〈세상의 아침〉(1.85), 〈생방송 모닝와이드〉(1.90)는 〈KBS 9시 뉴스〉와 다르게 인식되었다. 이것은 〈세상의 아침〉, 〈아주 특별한 아침〉, 〈생방송 모닝 와이드〉는 뉴스와 다른 장르로 파악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심층보도 형식을 취하는 시사 프로그램들 (〈추적60분〉, 〈PD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파일 4321〉) 〈시사 매거진2580〉이 어느 장르에 속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5.6%가 시사 다큐멘터리 장르로 분류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42.7%가 새로운 장르로 분류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방송종사자들은 심층 시사과 뉴스 매거진 프로그램을 〈KBS 9시 뉴스〉와는 다른 장르로 파악하지만, 이들 프로그램을 유사한 것으로 인식했다.

5) 방송종사자와 시청자 조사방법과 구체적인 통계분석결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장르설정 기준에 관한 연구〉(2004. 8. 방송위원회)를 참고하십시오.

현행 방송법은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편성규제를 갖고 있지 않지만, 74.6%의 방송종사자들은 어린이 프로그램을 별도 장르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린이 프로그램의 분류에 있어서도 애니메이션은 오락으로, <TV유치원 하나, 둘, 셋>과 같은 유아교육 프로그램은 교양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오락과 정보를 함께 담고 있는 <비타민>, <사과나무>, <느낌표>, <솔로몬의 선택> 등의 프로그램이 어느 장르에 속하는지와 관련해서 '인포테인먼트'라는 새로운 장르를 설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45.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내용에 따라 버라이어티 쇼나 생활정보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24.9%로 뒤를 이었다.

정보와 오락을 다루는 프로그램들, 퀴즈 쇼, 토크 쇼, 버라이어티 쇼 등의 유사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버라이어티 쇼인 <일요일 일요일 밤에>를 중심으로 <실제상황 토요일>, <퀴즈탐험 신비의 세계>, <퀴즈가 좋다>, <이홍렬, 박주미의 여유만만>, <최수종 쇼> 등과 정보오락 프로그램인 <사과나무>, <솔로몬의 선택>의 상대적 유사성을 측정했다.

<일요일 일요일 밤에>는 <실제상황 토요일>(2.70)과 <최수종 쇼>(2.34)와 유사하고, <퀴즈탐험 신비의 세계>(1.66)와 <퀴즈가 좋다>(1.59)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정보와 오락을 동시에 다루는 <사과나무>(2.17), <솔로몬의 선택>(1.98)은 <일요일 일요일 밤에>와 약간 다르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버라이어티 쇼, 퀴즈 프로그램,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을 방송전문가들은 구분하고 있지만, 버라이어티 쇼와 토크 쇼는 비슷한 장르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방송종사자들은 텔레비전 프로그램 장르구분에 있어서 형식과 내용을 중심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침 뉴스와 생활정보를 다루는 프로그램은 정통 뉴스와 다른 장르로 인식한다. 어린이 프로그램은 별로 장르로 분리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인포테인먼트는 새로운 장르로 분리할 것을 제안했고, 버라이어티 쇼와 퀴즈 쇼는 다르게 인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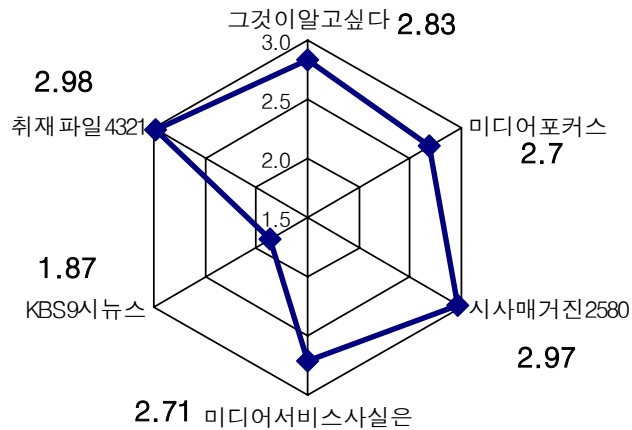
## 2. 시청자 장르구분 조사

<KBS 9시 뉴스>와 아침 시간대 뉴스 및 생활정보 프로그램 사이에 시청자들이 얼마나 유사하게 인식하는가를 살펴보았다. <KBS 뉴스광장>(2.94)과 <뉴스 투데이>(2.88)는 <KBS 9시 뉴스>와 비슷하게 받아들였다. 반면 뉴스 형식과 생활정보를 함께 다루고 있는 반면 뉴스 형식과 생활정보를 함께 다루고 있는 <이주 특별한 아침>(2.13), <세상의 아침>(2.34), <생방송 모닝와이드>(2.40)는 <KBS 9시 뉴스>와 전혀 다르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시청자는 방송종사자와 마찬가지로 아침 뉴스와 생활정보 프로그램을 정통 뉴스와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들 프로그램들은 동일한 장르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사 프로그램은 교양 제작국에서 만들면서 특정 주제를 60분 정도 심층적으로 분석하면서 사회감시의 역할을 하는 <PD수첩>, <추적 60분>, <그것이 알고 싶다> 등이 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심층시사 프로그램으로 정의된다. 반면 사회고발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보도국에서 제작하면서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 3개의 내용을 다루는 <취재파일 4321>, <시사 매거진 2580>, <뉴스 추적>이 있다. 또한 미디어 비평을 다루는 프로그램으로 <미디어 포커스>와 <신강균의 뉴스 서비스 사실은>이 있다.

[그림 1] <PD수첩>(MBC)과 상대적 유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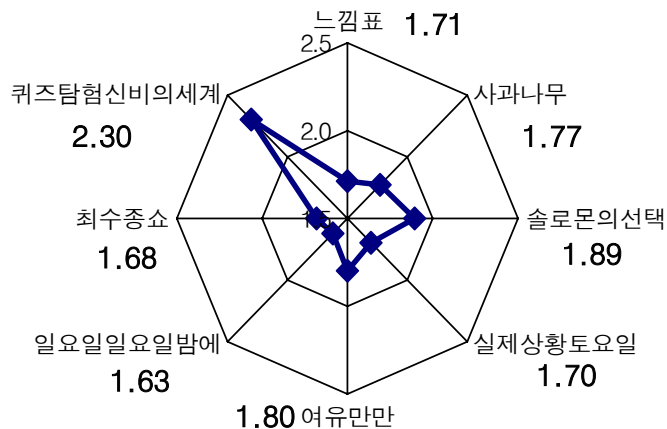
[그림 1]에서 보듯이, 시청자들은 시사 관련 프로그램들을 <KBS 9시 뉴스>와는 상이한 장르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PD수첩>과 같은 심층 시사 프로그램과 뉴스 매거진 장르로 볼릴 수 있는 <시사 매거진 2580>과 <취재 파일 4321>은 유사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인 <미디어 포커스>도 시사 보도 프로그램과 비슷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심층 시사 프로그램, 뉴스 매거진 장르,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은 동일한 장르에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연예·오락 관련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버라이어티 쇼, 토크 쇼, 퀴즈 쇼,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들을 시청자들이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살펴보았다. 버라이어티 쇼 <일요일 일요일 밤에>는 <실제상황 토요일>(2.5)과 <최수종 쇼>(2.4)와 유사하게 받아들여졌

지만, 퀴즈 쇼나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파악되었다. 시청자들은 버라이어티 쇼와 토크 쇼를 동일하게 인식하는데, 이것은 토크 쇼는 대화 중심이지만, 심야 토크 쇼는 게임이나 퀴즈 등을 다루고 있어서, 시청자들이 버라이어티 쇼로 장르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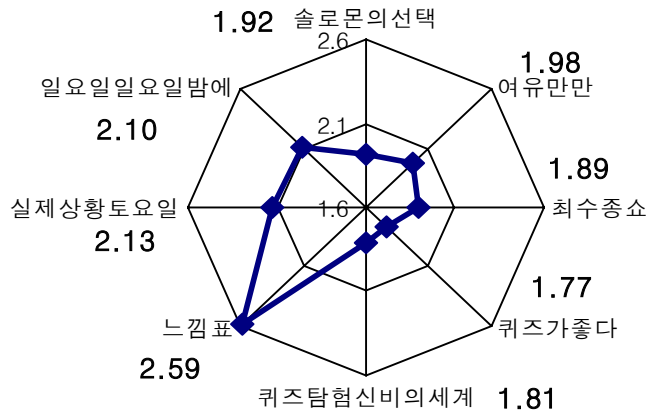
그러나 시청자들은 퀴즈 쇼를 토크 쇼나 버라이어티 쇼와 다르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퀴즈 쇼는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장르 혼합이 이루어지기보다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대체로 퀴즈 쇼는 일반 시청자가 출연해서 퀴즈 우승자를 뽑는 형식이므로 약간의 형식 상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예·오락 프로그램과 분리해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청자들은 <퀴즈가 좋다>를 <퀴즈탐험 신비의 세계>와 가장 유사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림 2] <퀴즈가 좋다>(MBC)와 상대적 유사도



시청자들은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도 버라이어티 쇼, 퀴즈 쇼, 토크 쇼와 다른 장르로 파악하는 경향이 높았다([그림 3] 참고). 대표적인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인 <사과나무>(MBC)를 중심으로 다른 연예·오락 프로그램들과 시청자들이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살펴본 결과, <사과나무>는 <느낌표>과 가장 유사하게 파악하는 경향이 있었다. <사과나무>는 '사과나무 장학금', '내 인생의 사과나무', '무료이사 헤드립니다' 등의 코너에서 보듯이,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여러 가지 사연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또한 '모유를 먹입시다'를 통한 캠페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느낌표>도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시청자들은 이들 프로그램의 기호의도와 내용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장르인식을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3] <사과나무>(MBC)와 상대적 유사도



이 조사는 방송종사자와 시청자를 대상으로 그 동안 방송사, 방송위원회, 시청자 사이에서 모호하게 받아들여졌던 장르들—아침 ‘뉴스와 생활정보’ 관련 프로그램, 시사보도 관련 프로그램, 어린이 프로그램, 버라이어티 쇼,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 등—의 유사성을 분석했다. 방송관련 종사자들과 시청자의 장르 인식은 서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 조사결과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모호했던 장르들을 좀더 명확히 구분할 수 있었다.

- 아침 ‘뉴스와 생활정보’를 함께 다루는 프로그램들, <세상의 아침>, <아주 특별한 아침>, <생방송 모닝와이드>는 뉴스와 다른 별도의 새로운 장르로 분류한다.
- 시사 보도 관련 프로그램들은 심층 시사과 뉴스 매거진을 묶어서 하나의 하위 장르로 설정한다.
- 어린이 프로그램은 시청자의 특수성과 방송의 공적 역할을 고려해서 별도의 장르로 분리한다.
- 버라이어티 쇼와 토크 쇼는 방송관련 종사자나 시청자가 유사하게 인식하고 있으므로 버라이어티 쇼의 하위장르로 토크 쇼를 포함시킨다.
- 퀴즈 쇼는 버라이어티 쇼와 다른 장르로 인식되고 있어서 분리한다.
-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도 방송관련 종사자나 시청자가 독립된 장르로 인식하고 있고, 방송 프로그램의 변화를 고려해서 새로운 장르로 설정한다.

## Ⅳ. 텔레비전 프로그램 장르와 하위장르

### 1. 뉴스

뉴스는 ‘좁은 의미로’ 국내외 사고, 사건, 쟁점, 과정 등과 관련해서 앵커를 중심으로 기자가 사실 보도(스트레이트, 리포트 등)와 의견 보도(해설, 논평 등)를 제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뉴스는 개개의 사건과 사고들을 다루기 때문에 사건과 사건들 사이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비체계적이다. 뉴스는 일반적으로 사실(fact)을 재구성한 것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시사에 관한 속보 또는 해설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너무 포괄적이어서 시사 정보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기획 보도, 생활정보 등이 일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뉴스를 좁은 의미로 한정했다. 따라서 뉴스 범주에 심층 시사 다큐멘터리, 생활정보 프로그램, 기획 보도 등은 제외한다. 뉴스의 하위장르는 <표 1>과 같다.

<표 1> 뉴스의 하위 장르

뉴스		
하위장르	정의	예
종합뉴스	사건 보도(단순 보도, 심층, 해설을 포함)	<9시 뉴스>, <뉴스데스크>
스트레이트 뉴스	사건 단순 보도(20분 이하의 뉴스)	<정오뉴스>, <5시뉴스>
지역뉴스	지역 관련 보도 및 해설	<대구 MBC 뉴스>
스포츠 뉴스	스포츠 관련 보도 및 해설	<스포츠 뉴스>
북한 뉴스	북한 관련 보도 및 해설	<남북의 창>, <통일전망대>
국제 뉴스	국제 관련 보도 및 해설	<지구촌 뉴스>, <세계는 지금>
경제 뉴스	경제 관련 보도 및 해설	<뉴스와 생활경제>
기상 뉴스	기상 관련 보도 및 해설	<클릭! 날씨@생활>
비정규 편성 보도	특별행사중계, 기자회견, 재난 방송, 선거방송 등	
기타	기타 보도 프로그램	

## 2. 시사보도

시사보도 프로그램은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시사에 대한 정보 프로그램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정통 뉴스 프로그램과 토론 프로그램은 제외된다. 최근 뉴스와 다큐멘터리, 뉴스와 생활정보 프로그램 사이에 장르 혼합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또한 하나의 프로그램 내에서 뉴스와 생활정보를 함께 다루는 프로그램으로 방송 3사가 아침 시간대에 방영하는 <아주 특별한 아침>, <생방송 모닝와이드>, <생방송 세상의 아침> 등과 같은 프로그램도 존재한다. 시청자와 방송종사자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이들은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뉴스로 인식하기 보다 새로운 장르로 파악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아침에 방영하는 뉴스와 생활정보 일반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하위 장르인 '종합 시사정보'로 분류한다.

심층시사 프로그램은 단일 주제에 대한 심층 고발 프로그램인 <PD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 <추적 60분>과 같은 프로그램과 3개 내외의 주제를 대상으로 심층보도를 하는 <취재파일 4321>, <시사 매거진 2580>, <뉴스 추적> 등과 같은 뉴스 매거진도 포함한다.

기획보도는 사회고발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양한 주제를 심층적으로 진단하는 기획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이밖에도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과 시청자 평가와 참여 프로그램도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신문 뉴스를 비평하는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과 시청자가 비평하는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은 동일한 하위장르로 묶을 수 있으나 방송법 제89조에서 별도의 장르로 정의하고 있어서 분리한다.

〈표 2〉 시사보도의 하위 장르

시사보도		
하위장르	정의	예
종합 시사정보	뉴스와 생활정보 일반을 함께 다루는 프로그램	<아주 특별한 아침>, <생방송 모닝와이드>
심층시사	하나나 몇 개의 단일 주제에 대한 심층 고발 프로그램	<PD수첩>, <시사매거진 2580>
기획보도	다양한 내용의 기획보도	<수요기획>
미디어 비평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미디어 포커스>
시청자 평가와 참여 프로그램	시청자 평가와 참여 프로그램	<열린 TV시청자 세상>
기타	위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시사보도 프로그램	



### 3.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는 포괄적인 의미로 뉴스와 시사보도, 스튜디오 밖의 방송을 포함한 텔레비전 논픽션물 전체를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뉴스와 시사보도를 제외하고 사실에 입각해서 주제를 심도있게 파고들면서 보통 야외촬영을 통해서 주제를 직접 보여주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한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소재에 따른 분류와 제작방식에 따른 분류로 나눌 수 있지만, 소재를 중심으로 다큐멘터리를 분류했다.

다큐멘터리는 소재분류를 중심으로 인간, 역사/기행, 자연과 과학, 환경, 교육과 문화, 리얼리티, 종합, 기타로 구분한다. 리얼리티 다큐멘터리는 특정 사건을 묘사하는데 실제 상황을 중심으로 연출을 최소화해서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영상기록 병원 24시>, <리얼 TV>, <제3지대> 등이 이에 속한다. 자연과 과학 다큐멘터리와 환경 다큐멘터리를 다른 하위장르로 구분하는데, 환경문제에 대한 고발과 비판을 담은 프로그램은 환경 다큐멘터리로, 자연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은 자연과 과학 다큐멘터리로 나눈다.

〈표 3〉 다큐멘터리의 하위 장르

다큐멘터리		
하위장르	정의	예
인간	인간 관련 사건재연, 인터뷰, 심층 취재	〈인간극장〉
역사/기행	역사, 기행 등 관련 다큐멘터리	〈역사스페셜〉
자연과 과학	자연과 과학 관련 다큐멘터리	〈자연은 살아있다〉
환경	환경문제를 다룬 프로그램	〈환경 스페셜〉
교육과 문화	교육과 문화예술 프로그램	〈예술기행〉
리얼리티	범죄, 사고 등을 대상으로 재연이나 기록	〈119구조대〉
종합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다큐멘터리	〈일요스페셜〉, 〈MBC스페셜〉
기타	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다큐멘터리	

### 4. 생활정보

생활정보 프로그램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지식이나 상식, 시의적절하고 흥미

있는 정보와 화제 거리를 안내하거나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한다. 생활정보 프로그램의 형식은 종합 구성, 집중 탐구, 단순 구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생활정보 프로그램은 스튜디오와 야외촬영을 통해서 제작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생활정보 프로그램은 방송 내용을 중심으로 지역, 가정(가사, 육아, 요리 등), 건강, 생활경제, 해외, 문화레저, 법률, 체험구성, 자선과 모금, 소수대상, 기타 종합으로 분류한다. 소수대상 프로그램은 특정 대상 시청자를 고려하는 프로그램인데, 연예오락 프로그램의 형식을 따르더라도 방송의 다양성과 공익성을 고려해서 포함시켰다. 소수대상은 사회주류와 상호작용에 있어서 고립되어 있거나 거리감을 갖고 있는 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인층, 장애인, 외국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지칭한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별도의 장르가 있으므로 소수대상에서 제외한다.

〈표 5〉 생활정보의 하위 장르

생활정보		
하위장르	정의	예
지역	지역관련 단순 구성 및 집중 탐구	〈6시 내 고향〉
가정(가사, 요리)	가사, 육아, 요리 관련 단순 구성 및 집중 탐구	〈즐거운 요리〉
건강	건강 관련 단순 구성 및 집중 탐구	〈생방송 TV닥터〉
생활경제	생활경제 관련 단순 구성 및 집중 탐구	〈실속 TV 주부 경제학〉
해외	해외 소식 관련 단순 구성 및 집중 탐구	
문화레저	문화레저 관련 단순 구성 및 집중 탐구	〈금요 컬처 클럽〉
법률	법률 관련 단순구성 및 집중 탐구	〈TV법정토론〉
체험구성	체험 관련 단순구성 및 집중 탐구	〈체험, 삶의 현장〉
자선/모금	자선과 모금 관련 프로그램	
소수대상	노인, 장애인 등 소수대상 프로그램	〈언제나 청춘〉
기타 종합	기타 종합 생활정보 프로그램	

## 5. 토론

토론 프로그램을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면 토론, 대담, 뉴스해설, 인터뷰와 각종 토크(talk) 프로그램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토크 프로그램과 토론 프로그램

램을 구분하지 않고 총칭하여 토크 프로그램으로 쓰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토론 프로그램과 토크 쇼를 구분해서 사용한다. 토론 프로그램은 어떤 형태의 의사결정의 성격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토크 쇼와 구분되며, 질문과 응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담이나 논쟁도 가능한 의견교환의 형태를 띤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다(나미수, 2003).

토론 프로그램은 사회적 현상과 과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 교환하면서 문제를 분석, 설명, 평가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공론의 영역을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으로 규정한다. 토론 프로그램은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논의될 수 있기 때문에 분류기준은 형식을 중심으로 토론과 대담으로 구분했다. 토론은 특정 패널 다수 출연자가 주제를 가지고 논쟁하면서 여론을 조성하고 수용자들이 합의점을 찾아 문제 해결의 방안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이며, 대담 프로그램은 사회자가 소수 출연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중심으로 구성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표 5〉 토론 프로그램의 하위 장르

토 론		
하위장르	정의	예
토론	특정 패널 다수 출연자가 주제를 토론	〈100분 토론〉
대담	사회자가 소수 출연자를 상대로 인터뷰	〈특별 대담〉

## 6. 교육 문화예술

교육과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형식, 내용, 기능에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과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구분해서 별도의 장르로 만들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 두 가지 장르의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1%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단일 장르로 묶었으며, 하위장르로만 구분했다. 교육 프로그램은 정규 교과과정을 다루거나 그에 준하는 내용의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회 교양 강좌 및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전통문화예술과 현대 문화예술 등을 다루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한다.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형식으로 보면, 버라이어티 쇼와 유사하나 내용의 성격 상 대중 오락적 프로그램과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위장르로 분류했다.

〈표 6〉 교육 문화예술의 하위장르

교육 문화예술		
하위장르	정의	예
학교교육	정규 교과과정을 다루거나 준하는 학습	
사회교육	일반인 대상의 교양 강좌와 직업교육	〈도올 특강〉
전통문화예술	전통예술 공연 및 소개	〈국악 한마당〉
현대문화예술	현대예술 공연 및 소개	〈클래식 오딧세이〉
기타		

## 7. 어린이 프로그램

어린이 프로그램은 특정 소수 시청자의 배려하는 측면에서 별도의 장르로 설정했다. 어린이 프로그램은 소수 시청대상 프로그램에 속하지만 보편성을 지니고, 방송이 어린이의 발달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공적 역할을 고려했으며, 방송종사자의 75% 가량이 새로운 장르로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참고했다. 어린이들이 삶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을 수 있도록 정서를 함양하고 학교교육에 앞서 지능과 과학적 이성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의 제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어린이 프로그램을 별도의 장르로 분리하는 것은 필요하다.<sup>6)</sup>

어린이 프로그램은 애니메이션<sup>7)</sup>, 취학 이전 유아대상 프로그램, 어린이 드라마, 퀴즈와 게임, 동요, 교육과 정보, 다큐멘터리, 기타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으로 구분한다. 애니메이션은 실사영화와 다르게 다양한 제작방식을 통해서 구현되는 장르로 셀 애니메이션, 클레이 애니메이션, 페이퍼 애니메이션, 3D 애니메이션 등을 의미한다. 애니메이션은 제작주체에 따라서 국내제작과 국외제작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다큐멘터리는 평일

6) 어린이 프로그램은 미국, 프랑스, 호주, 영국 등의 방송규제기구나 방송사가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6년 일주일에 3시간 이상 적합한 시간에 네트워크에서 어린이 프로그램을 방송해야 한다는 어린이 법을 통과시켰고, 프랑스 시청각최고위원회(CSA)도 개별 방송사 인허가 계약 시 체결하는 임무요강에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의무를 명시하며, 영국의 BBC나 호주의 ABC도 자체적으로 교육부서를 두어서 어린이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작에 참고하고 있다. 2004년 10월 열린우리당의 방송법 개정안에도 어린이 프로그램의 의무편성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7) 방송법 71조 2항은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 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이상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4년 3월 방송법 개정에서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 중에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고 추가되었다.

이나 주말 오후 4시~7시 사이 방영되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재미있는 동물의 세계>가 있다.

<표 7> 어린이 프로그램의 하위장르

어린이 프로그램		
하위장르	정의	예
애니메이션	셀, 클레이, 페이퍼, 3D애니메이션 프로그램	<검정고무신>, <유희왕>
유아교육	6세 이하의 유아대상 프로그램	<TV유치원 하나 둘 셋>
드라마	어린이 대상 드라마	<매직 키드, 마수리>
퀴즈/게임	어린이 대상 퀴즈와 게임	<퀴즈 막상막하>
동요	동요	<열려라 동요세상>
교육/정보	어린이 교육 및 정보	<신나라 과학나라>
다큐멘터리	오후 4-7시 사이 방영되는 어린이 대상 다큐멘터리	<재미있는 동물의 세계>
기타	기타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 8. 드라마

텔레비전 드라마는 공통적으로 서사(narrative)구조를 지니는 허구적 구성물(fiction)을 의미한다. 텔레비전 드라마가 역사 드라마처럼 특정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거나, 다큐드라마에서 보듯 특정 사실을 다루고 있다고 해도 작가의 상상력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허구적 성격이 강하다. 드라마의 하위장르를 구분하는데 장르 관습과 미학, 형식, 제작주체를 함께 반영했다.

드라마의 하위장르로 멜로드라마는 등장인물이 도덕적으로 양극화(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선한 인물과 악한 인물 사이의 대립)되어 있고, 강렬한 감정의 호소력을 지니며, 여성 등장인물의 지배력이 높고, 공적 공간보다는 사적 공간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일상성과 가족갈등이 중요한 요소로 취급된다(Brown, 1994; Feuer, 1984, Kilborn, 1992). 홈드라마는 멜로드라마와 유사하게 가정을 이야기의 주요 공간으로 활용되는데 불륜을 다루지 않으며, 등장인물의 선악대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멜로드라마와 다르다. 오명환(1994)은 한국에서 방영되는 홈 드라마의 장르관습으로 가족의 신뢰와 애정에서 이야기가 전개, 평범한 서민들의 행복 만들기, 등장인물의 동일한 비중, 가족

공동체의 확인, 이야기 중심을 구성하는 대화, 적극적인 여성 등장인물 등을 지적한다.

로맨틱 드라마는 젊은 남녀의 사랑을 주로 다루는 드라마로 사랑하는 남녀에 집중되며 주변인물은 그다지 중요하게 처리되지 않는다. 흔히 말하는 트렌디 드라마가 로맨틱 드라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역사드라마는 시간과 배경의 구분에 의한 것이므로 어느 시대를 다룬 것을 역사드라마로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를 기준으로 두 세대 이전 즉 40~60년 정도의 과거사를 소재로 한 드라마를 역사드라마로 규정한다. 경찰드라마는 법과 질서, 사회유지를 주제로 범죄와 수사관련 드라마, 법률드라마는 법적 공방을 다룬 드라마, 다큐드라마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드라마, 무협/액션은 무협이나 액션 중심의 드라마, 학교드라마는 학교를 주요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전원드라마는 농촌이나 어촌 등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막극은 한 회에 이야기가 끝나는 드라마인데 매회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형식을 하위 장르 구분의 주요 요소로 설정했으며, 외국 드라마의 경우 주제와 관계없이 외국에서 제작된 모든 드라마이다.

〈표 8〉 드라마의 하위 장르

드 라 마		
하위장르	정의	예
멜로드라마	가족 갈등, 불륜, 가족 성장기 등을 다룬 드라마	〈짚레꽃〉, 〈애정의 조건〉
흙 드라마	가족의 신뢰와 애정에서 전개되는 드라마	〈내사랑 누굴까〉
로맨틱 드라마	젊은 남녀의 사랑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드라마	〈천국의 계단〉
역사드라마	역사적 배경을 소재로 한 드라마	〈대장금〉
경찰드라마	범죄와 수사관련 드라마	〈경찰 특공대〉
법률 드라마	법률 문제를 다룬 드라마	
다큐드라마	다큐멘터리 형식의 드라마	〈다큐멘터리 이야기 속으로〉
무협/액션	무협이나 액션 중심의 드라마	〈인간시장 2004〉
학교	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학교〉
전원	농촌이나 어촌 등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전원일기〉
단막극	이야기가 한 회에 끝나는 드라마	〈베스트 극장〉
외국 드라마	외국에서 제작된 드라마	〈CSI 특별수사대〉
기타		

## 9. 버라이어티 쇼

버라이어티 쇼는 토크, 게임, 음악, 퀴즈 등을 함께 다루면서 3~5개 정도의 꼭지로 구성되는 토크 버라이어티 쇼, 연예계 소식을 전하는 연예정보 쇼, 오락이나 흥미 위주로 가벼운 일상생활을 소재로 스튜디오에서 제작되는 토크 쇼, 각종 연예시상식을 중계하는 연예시상식, 시청자 비디오를 중심으로 만든 비디오 모음집, 그리고 위에 속하지 않는 오락 쇼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표 9〉 버라이어티 쇼의 하위장르

버라이어티 쇼		
하위장르	정의	예
토크 버라이어티 쇼	토크, 게임, 음악, 퀴즈 등을 함께 다루는 프로그램	〈일요일 일요일 밤에〉
연예정보쇼	연예계 소식 및 동정	〈연예가 중계〉
토크쇼	오락, 인간 흥미를 중심으로 스튜디오에서 제작되는 프로그램	〈이홍렬 박주미의 여유만만〉
연예시상식	각종 연예 관련 시상식	〈대중상 시상식〉
비디오 모음집	시청자 비디오를 중심으로 만든 프로그램	
오락 종합	위에 속하지 않는 오락 쇼 프로그램	〈와우 동물천하〉

## 10. 음악 쇼

대중음악 일반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음악 쇼라고 정의한다. 음악 쇼는 가요 순위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가요 순위쇼, 대화와 노래를 혼합한 토크 음악 쇼, 가요 중심의 음악 프로그램인 가요 쇼, 일반인이 참여해서 노래와 춤을 경연하는 음악 경연 쇼 등으로 구분된다. 음악 쇼는 큰 범주에서 보면 버라이어티 쇼에 포함될 수 있으나, 방송법 제 71조에서 국내에서 제작된 프로그램 편성규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장르로 구분했다.

〈표 10〉 음악 쇼의 하위장르

음악 쇼		
하위장르	정의	예
가요순위 쇼	가요 순위 프로그램	〈SBS 인기가요〉
토크 음악쇼	대화과 노래를 혼합한 프로그램	〈윤도현의 러브레터〉
가요 쇼	가요 중심의 음악 프로그램	〈열린 음악회〉
음악 경연 쇼	일반인이 참여해서 노래와 춤의 경연대회	〈주부가요열창〉
기타	위에 속하지 않는 기타 음악 쇼	

## 11. 퀴즈와 게임 쇼

지식이나 재치, 실력을 겨루는 프로그램으로 사회자가 출제한 문제를 푸는 퀴즈 프로그램(어린이 퀴즈 프로그램은 제외)과 게임 형식의 놀이, 경연 등 기량을 겨루는 게임 쇼, 컴퓨터 게임을 중계하는 전자게임 쇼 등을 퀴즈와 게임 쇼로 정의한다. 전자게임 쇼는 과거에 없는 게임 쇼 형식인데, 최근 심야시간대를 중심으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어서 추가했다.

〈표 11〉 퀴즈와 게임 쇼의 하위장르

퀴즈와 게임 쇼		
하위장르	정의	예
퀴즈 쇼	지식이나 재치를 겨루는 프로그램(어린이 퀴즈 제외)	〈퀴즈가 좋다〉
게임 쇼	다양한 게임들로 구성된 프로그램	
전자게임 쇼	컴퓨터 게임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게임 스테이션〉
기타	위에 속하지 않는 기타 퀴즈 게임 쇼	

## 12) 인포테인먼트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은 오락 프로그램의 정보화와 정보 프로그램의 오락화라는 두



가지 측면을 담고 있다. 그러나 우리 방송현실에서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은 오락 프로그램의 정보화나 교양을 의미한다. 시청률 경쟁에서 한계를 느끼는 방송사들이 오락적 교양 혹은 교양적 오락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데, 이것을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이라고 칭할 수 있다.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들과 달리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변화가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장르이다. 예를 들어, 실제 일어난 사건을 소재로 하되 그것을 드러내는 방식이 비현실적이고 과장되어 있는 재연 프로그램, 사회적 이슈를 오락적으로 접근하는 프로그램(예: <좋은 나라 운동본부>), 과학이나 교육적 소재를 오락적으로 접근하는 프로그램(예: <사이언스 파크>), 인간적 관심사를 소재로 하되 이벤트의 감각적 형태로 구성해내는 프로그램(예: <TV는 사랑을 싣고>), 호기심과 오락적 즐거움의 감각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예: <호기심 천국>) 등 다양하다(김예란, 2003, 35쪽). 게다가 형식에 있어서도 게임 쇼, 버라이어티 쇼, 퀴즈 쇼,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은 지나치게 다양하고 변종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위장르를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표 12〉 인포테인먼트

인포테인먼트		
하위장르	정의	예
인터테인먼트	정보와 오락을 함께 담고 있는 프로그램	<사과나무>

### 13. 영화

일반적으로 극장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서사가 있는 허구물을 영화로 지칭한다. 따라서 텔레비전 영화로 불릴 수 있는 <TV문학관> 등의 프로그램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드라마의 단막극에 속한다. 영화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법 71조와 시행령 57조에 매월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로 국내제작 영화를 방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하위장르는 국내제작과 국외제작으로 구분했다.

〈표 13〉 영화

영 화		
하위장르	정의	예
국내제작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	〈쉬리〉
국외제작	외국에서 제작된 영화	〈반지의 제왕〉

## 14. 코미디

코미디는 개그맨이나 코미디언의 연기 비중이 높거나 프로그램 전체의 목적이 희극적 성격이 강한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코미디는 형식에 따라서 블랙 코미디, 스탠딩 코미디, 스케치 코미디, 풍자 코미디, 로맨틱 코미디, 슬랩스틱(slapstick) 코미디, 스크루볼(screwball) 코미디 등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이와 같은 미학적 구분을 따르지 않고 단순하게 코미디와 시트콤으로만 분류했다. 여기서 코미디는 짧은 코너로 구성된 풍트 코미디와 현재는 방영되지 않고 있지만 고전해학극과 같은 비교적 긴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지만 주로 코미디언이나 개그맨의 연기비중이 높은 프로그램까지 포함한다.

시트콤은 코미디와 일상성이 결합되어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시트콤은 일반적인 코미디의 요소들—풍자, 일탈, 패러디, 과장, 언어놀이 등—을 활용하지만 전통적인 슬랩스틱 코미디나 스크루볼 코미디와 달리 행위의 부조리나 기이성을 통해서 웃음을 유발하지 않는다. 게다가 시트콤은 등장인물이 특정 상황(시츄에이션) 안에 고정되어 있어서 언제나 유사한 상황에서만 진행된다. 시트콤은 가족 시트콤, 로맨틱 시트콤, 성인 시트콤 등으로 세 분류를 할 수도 있다.

〈표 14〉 코미디의 하위장르

코 미 디		
하위장르	정의	예
코미디	짧은 코너로 구성된 풍트 코미디	〈개그 콘서트〉
시트콤	드라마 형식을 취하는 코미디	〈뉴 논스톱〉
기타		

### 15. 스포츠

모든 종류의 스포츠 프로그램을 포함하되 스포츠 뉴스와 특정 스포츠의 교습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제외된다. 스포츠 프로그램은 아마추어와 프로 경기, 국내 경기와 외국 경기 중계를 중심으로 국내 아마추어, 국내 프로, 외국 아마추어, 외국 프로, 국가대항전, 기타(바둑이나 장기 등)로 구분한다. 박찬호나 박세리 등과 같이 국내 선수가 프로 경기에 참여하는 것을 중계하는 프로그램은 비록 외국 프로 스포츠 프로그램으로 정의한다. 이밖에도 신체를 이용한 운동경기뿐만 아니라 바둑, 장기 등도 실전을 중계하는 경우 스포츠 기타로 분류한다.

〈표 15〉 스포츠의 하위장르

음악 쇼		
하위장르	정의	예
국내 아마추어	국내 아마추어 경기 실황 중계 및 녹화	〈고교 야구〉
국내 프로	국내 프로 스포츠 경기 실황중계 및 녹화	〈프로 야구〉
외국 아마추어	국제 아마추어 경기 실황 중계 및 녹화	
외국 프로	국제 프로 스포츠 경기 실황중계 및 녹화	LPGA 중계
국가 대항전	국가를 대표해서 경쟁하는 스포츠 경기	A-매치 경기
기타	장기나 바둑 중계	

### 16) 광고와 기타

상업적 목적의 광고나 공익적 목적의 공익광고, 스포츠 광고 등이 광고, 그리고 프로그램 안내 및 예고 등이 광고와 기타 프로그램에 포함된다. 그러나 광고와 기타 프로그램은 편성분석에서 제외한다.

## V. 결 론

이 연구는 방송위원회가 프로그램 장르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존의 장르구분을 수정했다. 그동안 방송위원회, 방송사, 방송종사자 등이 장르를 구분하는 데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한 탓에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었다. 이 연구는 장르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형식과 내용에 의한 구분보다 방송법의 편성 규제, 시청자와 방송종사자의 인식, 프로그램 장르의 변화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첫째, 현행 방송법, 시행령,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위원회 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르들은 독립된 장르로 설정했다. 방송법 제71조 국내 방송 프로그램 편성규정에서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은 국내제작을 일정비율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방송법 시행령 57조는 구체적인 비율을 고시하고 있다. 또한 방송법 제89조의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의 편성을 주 60분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프로그램들은 개별 장르나 하위장르로 포함시켰다.

둘째, 방송의 공익성과 관련해서 시청자 대상을 고려해서 장르를 구분했다. 따라서 어린이 프로그램, 소수대상 프로그램을 장르구분에 포함시켰다. 어린이 프로그램은 소수 시청자 대상 프로그램에 속하지만 보편성을 지니며, 방송의 공적 역할과 관련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장르로 추가했다. 또한 소수대상 프로그램은 생활정보의 하위 장르로 사회 주류와 상호작용을 하는데 있어서 고립되어 있거나 거리감을 갖고 있는 집단으로 노인층, 장애인, 외국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구분했다.

셋째, 장르 구분시 내용과 형식을 일차적으로 고려했다. 장르가 텍스트, 산업, 수용자 사이의 상호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지만, 장르는 '코드화된 텍스트'(codification of text)라는 점에서 텍스트의 형식과 내용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용과 형식 이외에 방송법 규제조항과 관련해서 애니메이션과 영화의 경우 제작주체를 하위장르 구분의 기준으로 활용했다.

넷째, 장르는 고정되어 있지만 동시에 변화하는 것이므로 최근 방송환경에서 새롭게 부상하거나 변화된 장르를 새로운 분류에 포함시켰다. 새로운 장르로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 '리얼리티 프로그램',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종합 시사정보(두 가지 장르를 결합해서 구성된 프로그램들), 전자 게임 쇼 등을 추가했다. 이것은 최근 방송 프로그램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다섯째, 시청자와 방송종사자가 텔레비전 장르를 어떻게 인식하는가도 고려했다. 앞에서 보았듯이, 방송종사자와 시청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중심

으로 장르를 재구분했다. 예를 들어, 시사보도 프로그램, 어린이 프로그램,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 등을 새로운 장르로 추가했으며, 버라이어티 쇼의 경우 토크 쇼를 하위장르로 포함시켰다.

여섯째, 방송 프로그램 장르는 포괄적인 정의보다 좁은 의미로 정의해서 구분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장르를 포괄적으로 정의할 경우, 장르 간 배타적이기보다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장르를 세분화하는 작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뉴스의 경우 포괄적으로 정의해서, 사실을 재구성한 것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시사에 관한 속보 또한 해설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해할 경우 시사 정보, 다큐멘터리, 기획보도, 생활정보, 토론 프로그램 등과 겹치는 부분들이 발생해서 장르를 나누는데 적지 않는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

프로그램 장르는 본질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고, 장르 간 융합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현실에서 모든 장르를 배타적으로 정의하는 작업은 사실상 쉽지 않은 일이다. 물론 프로그램의 형식과 내용만을 중심으로 장르를 구분할 경우 어느 정도 상호배타적 구분이 가능하겠지만, 시청자에 대한 고려, 방송법과 시행령이 규정하는 편성규제, 일반적으로 시청자와 방송종사자들이 공감하는 장르인식, 한국 방송 프로그램의 변화와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장르를 구분하는데 적지 않은 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이 연구는 장르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형식과 내용의 측면뿐만 아니라, 방송이 공적 역할이라는 추상적 수준도 고려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방송위원회, 학계, 방송사, 조사회사 등이 함께 이 장르구분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조사회사도 이 구분법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 점은 방송관련기구와 산업들이 협의해나갈 사안이다.

## ■ 참고문헌

- 강대인·이동규·김우룡(1983). 프로그램의 유형별 분류 및 편성기준에 관한 연구. 《방송조사연구보고서 3집》. 방송위원회
- 김예란(2003). 텔레비전 이야기하기 문화에 관한 연구. 《韓國言論學報》. 47권 6호, 31~57쪽.
- 김훈순·김은정(2002). 사회적 공론장으로서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 장르관습과 한계. 《한국언론정보학보》 2002년 봄호, 통권 18호, 63~97.
- 나미수(2003). 공론장으로서 텔레비전 시사토론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KBS, MBC, SBS, EBS의 시사토론 프로그램 내용분석. 《방송연구》. 2003년 겨울호, 107~145쪽.
- 박소라(2003). 경쟁 도입이 텔레비전 프로그램 장르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韓國言論學報》. 47권 5호, 222~250쪽.
- 안정임(1993). 텔레비전 프로그램 유형 분류 기준에 관한 연구. 방송위원회
- 안정임(2004). 방송 소외계층과 수용자 복지: 다양성 개념으로 살펴 본 정책 현황과 방향. 《방송문화연구》. 16권 1호,
- 오명환(1994). 《텔레비전 드라마의 사회학》. 나남: 서울
- 원용진(1997). 장르 변화로 읽는 사회: 인기 드라마 〈모래성〉과 〈애인〉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통권 12호, 6~50쪽.
- 이은미(2001). 1990년대 텔레비전 방송의 다양성 분석. 《韓國言論學報》. 46권 1호, 388~412쪽.
- 조성호(2000). 텔레비전 방송사의 편성전략 분석: 개편시 변경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1990~1999. 《한국방송학보》. 14권 1호, 387~428쪽.
- 조은기(1998). 장르의 경제학. 《언론과 사회》. 통권 19호, 6~44쪽.
- 최양수(1993). 방송 다채널 시대의 수용자 복지 문제. '92 방송편성정책 연구위원회 종합보고서.
- 한진만(1989). 한국 텔레비전 내용의 다양화에 대한 연구: 프로그램 편성표 분석을 중심으로.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박사학위논문
- 홍석경(1997). 한국 어린이 프로그램 현황분석과 발전정책 연구. 방송위원회.
- Altman, R. (1996). 'Cinema and genre', in G. Nowell-Smith (ed.). The Oxford History of World Cinem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ittner, J. (1980). Broadcasting: An Introduction. N.J.: Prentice Hall.

- Brown, M. E. (1994). *Soap Opera and Women's Talk: The Pleasure of Resistance*. London: Sage.
- Brunsdon, C. (1990). Television: Aesthetics and audience. In P. Mallen-camp (ed.). *Logics of Television: Essays in Cultural Criticism*(pp. 59~72).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 Press.
- Clement, C. (2003). *La Nuit et l'ete: Rapport sur la culture a la television*. 하운금·이정순(역). *밤과 여름: 프랑스 TV의 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보고서*(2003). 커뮤니케이션북스: 서울
- Creeber, G., Miller, T. and Tulloch, J.(2001). *The Television Genre Book*. 박인규(역). *텔레비전 장르의 이해*(2004). 산해: 서울
- Corner, J. (1991). Meaning, genre and context: The problematics of 'public knowledge' in the new audience studies. in J. Curran and M. Gurevitch(eds.). *Mass Media and Society*(pp. 267~284). Edward Arnold: London. ITC. (1991). *Invitation to Apply for a Channel Licence*. London: ITC.
- Feuer, J. (1984). Melodrama, serial form and television today. *Screen*. 25(1), 4~16.
- Jauss, H. R. (1982). *Toward an Aesthetic of Reception*. Trans. T. Bahti. Sussex: Harvester Press.
- Kilborn, R. (1992). *Television Soaps*. London: Batsford.
- Neale, S. (1980). *Genre*. London: British Film Institute.
- \_\_\_\_\_ (1990). 'Questions of genre', *Screen*, 31(1), 45~66.
- Nisbet, M.(2001). That's infotainment. [www.csicop.org/genx/infotainment](http://www.csicop.org/genx/infotainment).
- Palmer, G. (2002). Big brother: An experiment in governance. *Television & New Media*, 3(3), 295~310.
- Rose, B.(1985). *TV Genres*. Greenwood Press: Westport & London.
- Vande Berg, L. R. & Wenner, L. A.(1991). *Television Criticism: Approaches and applications*. Longman: New York & London.

■ Abstract

## Redefining Television Programme Genre

Chang Yun Joo

(Professor, Dept. of Communication and Media, Seoul Women's Univ.)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television programme genres, considering broadcasting laws, genre blending, forms and contents of programmes, and audience and television producer's genre perception. Recently, as television environment is changed and television genre is blended with rapid speedy, there is a necessity in redefining television genre. In addition, with regard to television genres, there are lots of confrontations and conflicts among broadcasting regulator, broadcasters and advertising industries in a Korean broadcasting context.

In order to solve these conflicts and confusions, this research conducts focus group discussion in which scholars, producers and civic groups. Having these research findings, this research executes survey for both viewers and broadcasting producers to find common denominators on television genre perception.

This research classifies television programmes into seventeen genre such as (1) news, (2) news magazine, (3) documentary, (4) life style information, (5) talk programme, (6) education and arts, (7) children, (8) drama, (9) variety show, (10) music shows, (11) quiz and game shows, (12) info-tainment, (13) movies, (14) comedy, (15) sports, (16) advertising and others. These seventeen genre is regrouped into ninety sub-genres, considering the forms and contents, target audiences, broadcasting laws, and emergent genres.

Key Words: television genre, sub-genre, genre blending 